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억척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5. 25 교시 기념일에 조음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은 당사업의 생명선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역사적인 토작 『당면한 당선전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4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군민의 충정과 신뢰심이 최대로 분출되고 당중앙마다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신념의 노력가 하늘땅을 전감하는 적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5. 25교시를 다시금 들이켜보는 전당의 당인군들의 감회는 참으로 뜨겁다.

전당에 윤리사상체계를 풀어서 세워 당원들과 군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묘문해 주면서 당과 혁명으로의 일신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위엄을 끌어끼고 완성해나갈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2.5교시는 혁명식당이 존재하는 절기간 항구적으로 끌어위고나가야 할 당

전설의 기본으로, 군본원칙으로 이 땅에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이 땅에 허루랄기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주체의 사

회주의 강국을 일미세우기 위한 지름길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를 확고히 세우는데 있다.

최세의 천선위인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혁명의 전두에 놓이 모시고 그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충실히 따라나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를 알당기는 길이 있다. 것은 우리 군대와 민민이 실천전쟁속에 간직한 양혁불

변의 신념이다.

최세의 천선위인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혁명의 전두에 놓이 모시고 그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충실히 따라나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를 알당기는 길이 있다. 것은 우리 군대와 민민이 실천전쟁속에 간직한 양혁불

변의 신념이다.

최세의 천선위인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혁명의 전두에 놓이 모시고 그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충실히 따라나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를 알당기는 길이 있다. 것은 우리 군대와 민민이 실천전쟁속에 간직한 양혁불

변의 신념이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높이자고 당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인군들은 우리 혁명이 얻은 통일승리에 기쁨을 두고 진정한 충성의 7.01전투는

불변의 철리 — 자력자강이 제일이다!

어머니당 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 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고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제 문제를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혁신, 과학기술의 위력을 의거하여 물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의 봉쇄적 징벌을 짓부시고 경제 강국 건설에서 절적인 비약을 이루어여야 합니다.』

지난 12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당 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 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여러 가지 기계제

믿을 것은 오직

물을 흘려 제작한 단위들에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자강력 제일주의를 죽어도 버릴 수 없는 신념의 구호와도 같이 추켜들고 무강조국 건설을 위한 흥동적 전선에 헤쳐나온 천만군민에게 신실과 태평을 안겨 주는데서 사변의 의의를 가지는 이번 전시회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털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인민들에게 유혹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하여 끌어내는 우려 당시의 전략적 혁신의 정당성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자기 힘 뿐이다

이 불파 한발 남짓한 기간에 제작해낸 것이다.

그 나날 브라보르 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이 그린 도면만 빼고 7,000여 매나 된다고 한다. 파운 이 설계가 짧은 기간에 현실로 끌어지겠는가고 우려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실제 금성프라토 공장로 등에 글이 이 브라보르를 제작하는 과정에 넓은 실제의 고비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하루하루가 아내려 일정일정이나 그대로 난관복부의 험난하였다.

하지만 그간에 수령님들의 지원과 함께 끌어지지 않았다. 기적이라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전본모방의 깊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초행길이었다. 그것도 최악의 조건에서 추켜든 첨단기술과의 목표였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조선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을 걸고 남들이 잘은 알, 딱 걸음을 한 걸음에 뛰어넘으며 풍물처럼 내달려온 미녀를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그려낸 그림이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세대와 세대를 미흡히 떠올려온 7월 10일 전후의 날짜들은 우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들의 일출마다에 남아 있다.

당파 수령의 품속에서 키우고 태여온 지

